

양고기일일시장뉴스 (2026.10.20)

(주)로드프리미엄 | 대상: 호주 / 뉴질랜드

오늘의 핵심

- 1. 비 소식에 재입식 수요가 살아나 호주 재입식 양 지표는 10/16 1,195¢/kg으로 한 주 새 29¢, 경량 양 지표는 1,077¢ (+21¢) 올랐습니다.
- 2. 10/16 주간 호주 양 출하는 186,153두로 32% 늘어 4월 이후 최대였습니다. 그래도 중량 양 지표는 1,119¢/kg(+1%)으로 올랐고, 머튼 지표는 830¢/kg으로 강보합입니다.
- 3. 미국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업계는 최대 6~8년의 수입 제한(세이프가드)을 요구하며 현재 21%인 자국산 점유율을 40%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호주·뉴질랜드는 피해를 부인했고, 피해 판정은 11/13까지 나옵니다.
- 4. 뉴질랜드 양 스케줄(17.5kg YX)은 10/12 기준 북섬 NZ\$209, 남섬 NZ\$206으로 보합이며, 1년 전보다 17% 높습니다.
- 5. 10/19 벤디고 양 경매는 양 19,624두(+774)가 나와 도축용 양이 대체로 강보합(주요 등급 1,120~1,180¢/kg)이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10/19 67.84위안/kg으로 보합입니다.

국가별 오퍼가격 참고 지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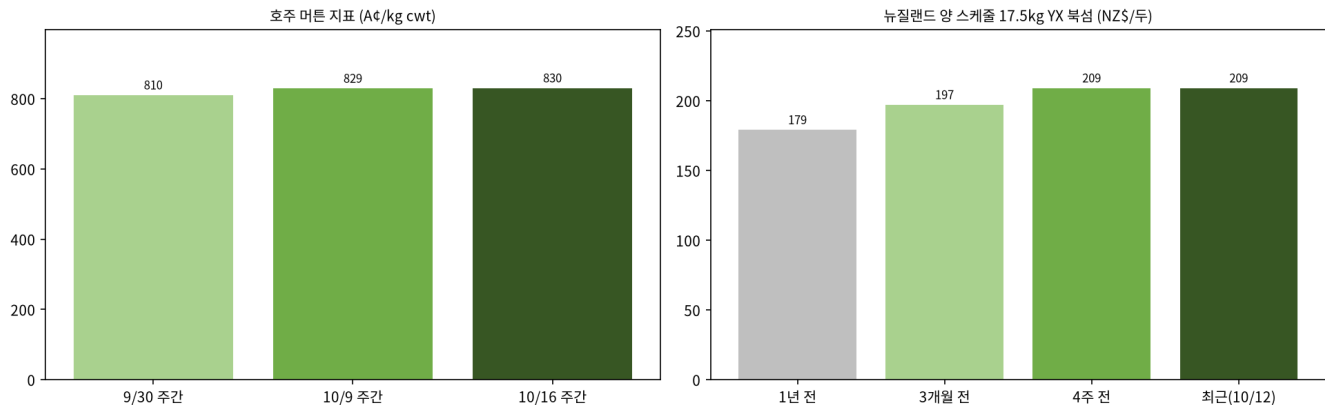
실제 한국향 오퍼가격은 비공개이므로, 아래는 산지 경매가, 가공업체 스케줄, 가격지수 등 공개 참고 지표입니다.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무역용 양 지표 NTLI (10/9 주간)	1,153 A¢/kg cwt	전주 +5%	MLA 주간 사항
호주	머튼 지표 (10/16 주간)	830 A¢/kg cwt	강보합 (전주 829)	MLA 주간 사항
호주	중량 양 지표 (10/16 주간)	1,119 A¢/kg cwt	전주 +1%	MLA 주간 사항
호주	재입식 양 지표 (10/16)	1,195 A¢/kg cwt	전주 +29¢	Mecardo
호주	경량 양 지표 (10/16)	1,077 A¢/kg cwt	전주 +21¢	Mecardo
호주	벤디고 도축용 양 주요 등급 (10/19)	1,120~1,180 A¢/kg cwt	강보합, 양 19,624두 (+774)	Agora(벤디고)
호주	전국 양 출하 (10/16 주간)	186,153두	+32%, 4월 이후 최대	MLA 주간 사항
호주	NTLI (9/30 주간, ABARES)	1,088 A¢/kg cwt	전년 -8%	ABARES
호주	발라랏 양 평균 (10/9 주간)	1,226 A¢/kg cwt	-	MLA 주간 사항
호주	AuctionsPlus 재입식 양 지표 ARLI (10/7 주간)	1,329 A¢/kg cwt	-10¢	AuctionsPlus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북섬 (10/12)	NZ\$209/두	4주 전 209, 1년 전 179	interest.co.nz
뉴질랜드	양 스케줄 17.5kg YX 남섬 (10/12)	NZ\$206/두	4주 전 205, 1년 전 176	interest.co.nz
호주	와가 20~24kg / 24~26kg 무역용 양 평균 (10/15)	1,192 / 1,189 A¢/kg cwt	두당 +5~7달러	Agora(와가)
호주	와가 30kg 이상 대형 양 평균 (10/15)	1,082 A¢/kg cwt	소폭 강세, 두당 A\$345~405	Agora(와가)

국가	지표	최근 가격	변동	출처
호주	호삼 중량·대형 무역용 양 평균 (10/14)	1,185 / 1,180 A\$/kg cwt	두당 +5~20달러	Agora(호삼)
호주	호삼 수출 등급 양 평균 (10/14)	1,150 A\$/kg cwt	두당 A\$318~347	Agora(호삼)
호주	야스 24~26kg 무역용 양 (10/14)	1,120~1,150 A\$/kg cwt	두당 +6달러	Agora(SELX 야스)
호주	야스 가공용 머튼 (10/14)	800~900 A\$/kg cwt	두당 +8~10달러	Agora(SELX 야스)
호주	벤디고 무역·중량 양 (10/12)	1,100~1,180 A\$/kg cwt	전체 평균 두당 A\$267(+5)	Agora(벤디고)
호주	JBS 남호주 신규 시즌 양 구매가 (서호주산)	A\$11.20/kg HSCW	-	Agora Marketplace
호주	양 가격 (MLA, 10/10)	11.53 AUD/kg	0.0%	agri.markets(MLA)
중국	양고기 도매 평균 (10/19)	67.84 CNY/kg	10/16과 같음	농업농촌부
중국	양고기 도매 주간 평균 (10/9~15)	67.11 CNY/kg	전주 -1.0%, 전년 +8.1%	Foodmate(농업농촌부 주간)
뉴질랜드	대미 양고기 관세 (현행)	13.2%	인상 여부 ITC 심사 중	Farmers Weekly NZ
뉴질랜드	Westpac 양고기 가격지수 (10/7)	686	12월 681 전망	Westpac Agri Bites

국가별 가격 변화 그래프

양고기 국가별 가격 변화



자료: ABARES, MLA 주간 시황, MLA 주간 시황(10/9), interest.co.nz

국가별 주요 뉴스

호주

- 미국 양 업계는 10/16 ITC 공청회에서 최대 6~8년의 셰이프가드를 요구했습니다. 현재 21%인 미국산 점유율을 30~40%대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. 호주·뉴질랜드산은 미국 양고기 시장의 약 80%를 차지하며, 호주 대표단은 미국 가공업체도 수요를 맞추려면 수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(Farmonline, Sheep Central)
- 10/19 벤디고 양 경매는 총 26,554두(-496)였고, 양은 19,624두로 774두 늘었습니다. 도축용 양 주요 등급은 1,120~1,180\$/kg으로 강보합이었고, 18~20kg 교잡종은 1,145\$(+20\$), 재입식용은 1,250\$이었습니다. Agora(벤디고)

3. 그렉 모리아티 주미 호주대사는 10/16 ITC 공청회에서 미국 양 산업의 쇠퇴는 가뭄·양모 수요 감소·보조금 폐지 때문이며 수입은 공급 공백을 메웠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. ITC 직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소비 양고기의 약 80%를 수입하고, 응답한 미국 생산자 49곳 중 31곳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미국은 16억 달러 규모의 호주산 양고기 관세·규제를 검토 중입니다. [SMH](#)
4. Mecardo에 따르면 NSW 최대 100mm 등 주요 산지에 비가 내리며 재입식·비육업체 매수가 늘어, 재입식 양 지표는 1,195¢/kg(+29¢), 경량 양은 1,077¢(+21¢)로 올랐습니다. 무역용 양은 1,154¢로 보합, 메리노 양은 1,061¢(-7¢)입니다. 중국·유럽·영국 수요는 강하지만 미국 수요는 물가 부담으로 약합니다. [Mecardo](#)
5. 10/16 주간 전국 양 출하는 186,153두(+32%)로 4월 이후 가장 많았고, 성양 출하도 69,243두(+16%)로 늘었습니다. 출하가 크게 늘었는데도 중량 양 지표는 1,119¢/kg(+1%), 머튼 지표는 830¢/kg로 버텼고 재입식 양 지표도 2.5% 올랐습니다. [MLA 주간 사항](#)
6. 10/15 와가는 양 38,600두(+3,600)가 출하됐습니다. 20~24kg 무역용 양은 두당 5~7달러 올라 평균 1,192¢/kg, 24~26kg은 1,189¢/kg이었고 대형 수출용 양도 보합~두당 7달러 강세였습니다. [Agora\(와가\)](#)
7. 10/15 NSW 양 시장은 출하가 늘었는데도 재입식·비육업체 경쟁이 강해 대부분 등급이 올랐고 머튼도 강세를 유지했습니다. [Agora 양 시장 요약](#)
8. 10/14 호삼은 양 6,100두(+200)가 출하됐고 두당 5~20달러 올랐습니다. 중량 무역용 양 평균은 1,185¢, 대형 무역용은 1,180¢, 수출 등급은 1,150¢/kg입니다. [Agora\(호삼\)](#)

뉴질랜드

1. ITC 공청회에서 미국 농가·가공업체들이 잇따라 나와 뉴질랜드산 수입이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. [Farmers Weekly NZ](#)
2. 호주·뉴질랜드 대사는 ITC에 양국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시장을 키우고 미국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[Inside U.S. Trade](#)
3. B+LNZ의 케이트 애클랜드 의장이 미국의 수입 양고기 공청회에 나가, 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이 미국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. [NZ Herald](#)
4. 호주·뉴질랜드산 양고기 수입 규제를 지지하는 서한에 미국 하원의원 68명이 서명했습니다. 작년 조사 요청 서한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. Greenstone Meats는 워싱턴 로비 업체를 고용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5. 뉴질랜드육류산업협회(MIA)는 워싱턴 ITC 공청회에 참석해, 미국 경제학자를 고용하는 등 관세 인상 반대 논리를 준비했습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6. ITC가 피해를 인정하면 12월 1일까지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고, 대통령은 권고를 받은 뒤 60일 안에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7. 미국 양 산업은 미국 내 소비에서 국산 비중이 30%까지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. ([Farmers Weekly NZ](#))

참고: 경쟁 공급국

1. 우루과이의 1~9월 양고기 수출은 약 650만 kg으로 18% 줄었습니다(우루과이 양모청). ([World Beef Report](#))

한국 수입업체 관점 시사점

-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, 관세나 쿼터가 확정되면 호주·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며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미국 생산자 다수(49곳 중 31곳)가 수입 피해가 없다고 답한 점은 호주·뉴질랜드에 유리한 근거입니다. 그래도 미국의 관세 인상 판정(11/13 전후)이 4분기 최대 변수이고, 미국 의회의 압박까지 커져 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관세가 오르면 호주·뉴질랜드산 대미 물량이 아시아로 돌아 한국향 오퍼가 내려갈 수 있으므로, 대량 계약은 판정 뒤로 미루고 당장 필요한 물량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.
- 호주산: 신규 시즌 양 출하가 늘기 시작했지만 가공업체 경쟁이 강해 동부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. NSW 등 동부는 강세이지만 서호주는 출하가 많아 약세여서, 서호주산 물량 위주로 가격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. 중국 양고기 도매가는 주간 평균이 전년보다 8% 높아, 중국 수요 회복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.
- 뉴질랜드산: 스케줄이 전년 대비 17% 높고 수출가격도 최고 수준이라, 관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세 오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

한 줄 요약

호주 산지 양값은 강보합이지만 미국 업계가 최대 8년의 세이프가드를 요구하고 있어, ITC 판정(11/13) 전후로 호주·뉴질랜드산 물량이 아시아로 돌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 시기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.